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전달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3장 '성경의 전달', 367~384쪽 무렵(본문 쪽 표시 368~384 기준)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단계(하나님의 음성 → 선지자와 사도 → 기록된 말씀)에서는 말씀의 능력·권위·임재가 조금도 줄지 않는다. 둘째 단계(사본, 번역, 설교, 신학, 이해, 확신...)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수단이다. 그래도 이 수단들은 말씀을 실어 나른다. 이 장은 그중 '필사'를 다룬다. 프레임은 무오를 원본 '문서'가 아니라 원본 '텍스트'(원문)에 묶는 것이 성경 자신의 원리라고 논증한다. 이어 이 제한에 대한 비판 세 가지(사도들도 사본을 인용했다, 변명용 회피다, 무오를 쓸모없게 만든다)에 답한다. 끝으로 하나님이 왜 원본을 남기지 않으시고 완벽한 사본도 주지 않으셨는지 묻는다. 그는 이것을 말씀을 공동체로 함께 받게 하시려는 뜻으로 읽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0. 들어가며 —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두 목록

프레임은 하나님이 보통 사람 화자와 저자를 통해 계시를 전하신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조차 사람의 언어를 쓰신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의 계시에 닿는 길은 기록된 성경뿐이다. 첫 목록(하나님의 음성 → 선지자와 사도 → 기록된 말씀)에서는 능력·권위·임재가 줄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만큼 권위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눈과 마음에 닿기까지는 둘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며, 그 말씀의 주권적 속성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이 장의 큰 주제는 무오한 계시와 오류 있는 인간의 전달이 어떻게 서로 얽히느냐이고, 이번 장은 그중 '필사'를 다룬다.

1. 첫 목록: 능력·권위·임재가 줄지 않음
2. 둘째 목록: 영감 없는, 오류 가능한 수단
3. 둘째 목록도 말씀을 실어 나르는 통로
4. 둘째 목록의 순서는 잠정적이고 유연함
5. 이 장은 '사본·필사' 단계에 집중

> **디모데후서 3:16**
> 영감이 사람(선지자·사도)뿐 아니라 기록된 글 자체에 미친다는 근거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 원본이란 무엇인가?

원본은 단순히 영감 받은 저자가 쓴 문서이고, 나머지는 사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가 초안을 여러 번 썼을 수 있고, 대필자(비서)를 썼을 수도 있다. 바울은 더디오 같은 대필자를 썼고, 편지 끝에 “내가 친필로 쓴다”고 덧붙이곤 했다. 그러면 첫 초안이 원본인지, 대필자의 실수를 바울이 고친 판이 원본인지 묻게 된다.
프레임은 그레그 반센의 정의를 따른다. 원본은 저자가 쓴 고유한 글을 처음으로 '완성해서' 직접 쓰거나 승인한 판이다. 초고가 아니라 완성품이고, 저자는 그것이 영감된 가르침임을 어떤 식으로든 보증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편지를 마쳤다고 밝히고 사람 편에 보냈을 것이다.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의 증언이 그것이 진짜 바울의 편지임을 교회에 확인해 주었다.

1. 원본은 '첫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
2. 저자가 직접 쓰거나 승인한 판

로마서 16:22

더디오가 로마서를 받아 적었다는 대필자의 실제 사례

>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고린도전서 16:21

편지 끝을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표시 → 나머지는 대필

>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갈라디아서 6:11

같은 친필 표시

>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데살로니가후서 3:17

친필 인사가 진짜 편지의 표시라는 증언

>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빌레몬서 1:19

같은 친필 표시 (재료의 '빌 1:19'는 빌레몬서 19절의 오기로 보고 바로잡음)

>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 2. 성경 무오성이 원본에 제한된다는 것은 성경적인가?

상식적으로 책의 내용은 저자가 쓴 것뿐이다. 내가 칸트의 책 여백에 메모를 해도 그 메모가 칸트의 책이 되지는 않는다. 토머스 제퍼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잘라 낸 성경을 만들었어도 성경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성경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거듭 명령한다(신명기, 잠언, 요한계시록). 프레임은 이

말씀에 '더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 말씀에서 '뺐다'고 꾸짖으셨다. 그러니 성경은 원본과 그것을 바꾼 사본을 분명히 구별한다. 다만 프레임은 여기서 중요한 구별을 하나 더 한다. 문제는 원본 '문서'가 아니라 원본 '텍스트'(원문)다. 링컨의 연설문을 다섯 번 인쇄하면 종이는 여섯 장이지만 텍스트는 하나다. 그래서 정확한 사본에는 원문이 그대로 있고, 그 사본은 원본만큼 참되고 권위가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필사자가 실수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따라서 영감·권위·무오를 원본 텍스트에 묶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그어 놓은 선이다.

1. 성경 스스로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함
2. 가감 금지 = 원본과 변질된 사본의 구별
3. 기준은 원본 '문서'가 아니라 '원문'
4. 정확한 사본은 원본만큼 권위 있음
5. 필사가 완벽하리라는 약속은 성경에 없음

> **신명기 4:2**
> 하나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 가감 금지의 기본 원리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신명기 12:32**
> 같은 명령의 반복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 **잠언 30:5-6**
> 모세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
>
>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사야 29:13-14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치는 일 —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적용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가복음 7:8

바리새인이 전통을 붙들어 말씀에 '더함'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태복음 23:23

정의·긍휼·믿음을 버려 말씀에서 '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명기 18:20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죄의 무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 3.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사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지 않았는가?

여러 신학자는 이렇게 반론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원본이 없었다. 그들은 사본과 번역본, 특히 70인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다. 그러니 영감을 원본에 묶으면 안 된다. 프레임은 일곱 가지로 답한다. (1) 예수님과 사도들도 하나님의 참 말씀과 사람이 덧붙인 것을 분명히 구별했다. (2) 중요한 것은 원본 문서가 아니라 원문이다. 정확한 사본을 인용하면 곧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다. (3) 28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구약을 잘못 인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성경은 코란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번역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아람어·헬라어로 쓰였다. 70인역 인용도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옮기는 한 참되고 권위가 있다. (5) 성경의 언어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다. 번역할 때 생기는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인용의 정확성을 해치지 않는다. (6) 반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오류 있는 텍스트도 영감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이를 이미 반박했다. (7) 사도들은 70인역을 '번역본으로서' 권위 있다고 내세운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들이 익숙한 성경으로 구약 원문을 전했을 뿐이다.

1. 사도들도 참 말씀과 첨가를 구별함
2. 정확한 사본 인용 = 원문 인용
3. 성경은 번역 가능한 말씀이라는 전제
4. 일상 언어의 뉘앙스 차이는 오류 아님
5. 70인역은 소통 수단이지 별도 권위 아님

> **(직접 인용 없음)**
> 특정 구절 대신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관행 전체가 근거. 자세한 논의는 프레임 26·28장으로 넘김

📜 4. 이 제한은 변증적 회피인가?

비판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답이 막히면 “필사자가 틀렸겠지”라고

자신을 보는 방식에서 나왔다(2절). 둘째, 복음주의자들은 실제로 필사 오류에 거의 기대지 않는다. 필사 오류를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근거가 있을 때다. 솔로몬의 외양간 숫자가 열왕기상에는 4만, 역대하에는 4천으로 나온다. 가이슬러와 호웨는 히브리어로 두 숫자가 비슷하게 생겨 필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이다. 반대로 겨자씨 문제처럼 본문이 변질됐다고 볼 근거가 없는 곳에서 “본문이 잘못됐을 수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프레임은 오히려 설명이 막히면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고, 그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한다.

1. 제한의 출처는 변증이 아니라 성경 자신
2. 필사 오류 호소는 근거 있을 때만
3. 왕상 4:26과 대하 9:25는 합당한 사례
4. 근거 없는 '본문 변질' 주장은 역효과
5. 막히면 “모르겠다”가 더 정직하고 설득력

> **열왕기상 4:26**
> 외양간 4만 — 필사 오류 가능성이 합리적인 사례
>
>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 **역대하 9:25**
> 외양간 4천 — 위 구절과 비교되는 평행 본문
>
> 솔로몬의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 **마태복음 13:31-32**
> 겨자씨 — 본문 변질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사례(28장에서 다른 설명 제시)
>
>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설명의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으며”

📜 5. 이 제한은 무오성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가?

또 다른 비판은 이렇다. 무오가 사라진 원본에만 해당한다면 지금 우리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면 무오성은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다. 프레임은 다섯 가지로 답한다. 첫째, 무오성 교리는 먼저 우리 편의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고백이다. 원본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신 분이 된다. 둘째, 무오성은 실제로도 쓸모가 있다. 원본 문서는 사라졌어도 원문은 사본을 통해 전해졌다. 본문 비평으로 어디가 흔들리는지 가려낼 수 있다. 변질의 증거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 본문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붙들 수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당시 사본에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다. 셋째, 성경은 다른 어떤 고대 문헌보다 사본이 많고, 원저작 시기에 가깝고, 질도 좋다. 사본 사이의 차이는 대부분 철자나 어순처럼 의미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이 하나님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를 말하는 이유다. 다만 프레임은 이것을 KJV나 비잔틴 본문만이 참이라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넷째, 마가복음 끝부분처럼 큰 본문 문제도 교리에는 영향이 없다. 프레임은 '긴 결말'(16:9-20)이 원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그 내용은 성경 다른 곳과 어긋나지 않는다. 다섯째, 성경은 좋은 의미에서 '중복'된다. 어떤 교리도 한 구절에만 기대지 않으므로, 한 구절이 흔들려도 같은 주제의 다른 구절들이 확신을 준다.

1. 무오성은 먼저 하나님의 진실성 고백
2. 원문은 사본과 본문 비평으로 접근 가능
3. 성경 사본은 양·시기·질에서 독보적
4. 사본 차이는 대부분 의미 없는 사소함
5. 교리는 여러 구절 위에 서므로 흔들리지 않음

> 마가복음 16:9-20

[9][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

마가복음 16:18

뱀·독 구절. 일상 규범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때로 따르는 표적이라는 해설(각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8:3-5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음 — 마가복음 16:18의 내용이 성경 다른 곳과 맞는다는 예

[3]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고린도후서 12:12

표적은 '사도의 표'였다 — 그런 기적이 사도의 메시지에 따랐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 6. 왜 하나님은 원본 분실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원문을 놀랍게 지키셨다. 그렇다면 원본 문서도 지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 프레임은 성경이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먼저 인정한다. 그 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첫째, 원본이 남았다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교회사의 성물 숭배를 보면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이 모세의 놋뱀에 분향하자 그것을 부수었다. 둘째, 원본이 있어도 지금의 논쟁들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감과 권위, 해석과 교리를 둘러싼 다툼은 거의 다 본문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다. 그러니 원본 보존은 꼭 필요하지 않은 능력 사용이었을 것이다.

1. 성경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 않음(추론)
2. 원본은 우상숭배 대상이 될 수 있었음
3. 놋뱀을 부순 히스기야가 그 예
4. 원본이 있어도 해석 논쟁은 그대로

> **열왕기하 18:4**
> 하나님이 주신 물건(놋뱀)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례
>
>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 7.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본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프레임은 질문을 넓힌다. 완벽한 사본을 물을 수 있다면 완벽한 번역, 완벽한 설교, 완벽한 신학도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왜 성경을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즉시 이해를 주시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다 같은 질문이다. 하나님이 번역과 가르침을 오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면, 필사를 맡기신 것도 이상하지 않다. 프레임의 조심스러운 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공동체로' 받아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완벽한 번역본이 있다면 누구든 서점에서 사서 혼자 다 깨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말씀 둘레에 모이고, 언어·가르침·삶의 본 같은 서로의 은사에 기대어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물론 죄 때문에 이 과정은 자주 분열로 흐른다. 그래도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자라게 한다. 프레임은 하나님께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지나친 추측은 삼가자고 덧붙인다.

1. 완벽한 사본 요구는 완벽한 번역 요구와 같음
2.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수고를 통해 일하심
3. 말씀은 공동체로 받아 '내 것'이 됨
4. 서로의 은사에 기대며 교회가 세워짐
5. 이유를 단정하지 말고 겸손히 추측

> **에베소서 4:12**
>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 공동체적 말씀 이해의 토대
>
>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4:16**
>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몸을 세움
>
>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1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로마서 14:19; 15:2, 고린도전서 8:1; 14:3-5, 12, 17, 고린도후서 10:8; 12:19; 13:10, 에베소서 4:29, 디모데전서 1:4

'덕을 세움'이 신약의 기본 주제임을 보이는 구절 묶음

로마서 14: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3-5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10: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19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3: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디모데전서 1:4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몸인 교회를 하나되게 할 것이다."

📜 8. 어떤 내용의 분실도 심각한 분실이 아닌가?

전달이 완벽하지 않으니 무언가를 잃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 원래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손실이 아닌가? 프레임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답한다.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신 것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다. 오바댜는 짧은 책에 담긴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적어도 둘은 남아 있지 않다. 그 말씀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정하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4의 '모든 말씀'은 역사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뜻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 다스리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달 과정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프레임은 네 가지로 결론짓는다. 원본

비평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리적 가르침은 성경의 중복 덕분에 완전히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려 하신 모든 인격적 말씀을 가지고 있다.

1. 말씀의 일부 분실은 성경 안에도 선례 있음
2.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일, 사라진 바울 서신
3.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4. 무엇을 남길지는 하나님이 정하심
5. 하나님이 주려 하신 말씀은 다 가지고 있음

> **마태복음 4:4**
>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 분실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답의 열쇠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요한복음 21:25**
> 예수님이 행하신 일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다 — 분실의 선례
>
>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고린도전서 5:9**
> 바울이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 — 보존되지 않은 서신
>
>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 **고린도후서 7:8**
> 또 하나의 보존되지 않은 바울 서신으로 프레임이 제시
>
>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짧은 책보다 많았으리라는 예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원본(자필본)
영감 받은 저자가 처음 완성해 직접 쓰거나 승인한 '문서' 그 자체.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저자 친필 원문
원본에 적힌 '글의 내용'. 종이·파피루스·디지털 등 어떤 매체에 옮겨도 같은 텍스트로 남는다. 이 장의 핵심 구별이다.

사본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것.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본문 비평
여러 사본을 비교해 원래 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학문.

70인역
예수님 시대 유대인 사이에 널리 쓰인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틀린 것이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이 틀릴 수 없고 우리를 그릇 이끌지 않는다는 성질. 무오성과 짝을 이룬다.

고대 왕과 속국이 맺은 조약(종주권 조약) 끝에 붙던 “이 글을 고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는 경고문.

영유

받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는 일. 프레임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영감과 무오는 원본 '문서'가 아니라 원본 '글(원문)'에 속한다. 이는 성경이 '가감하지 말라'며 스스로 그은 선이다.
- 정확한 사본과 번역은 원문을 담으므로 원본만큼 권위가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렇게 성경을 사용했다.
- 원문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었고, 본문 비평으로 흔들리는 곳을 가려낼 수 있으며, 교리는 성경의 중복 덕분에 온전하다.
- 하나님은 말씀을 오류 있는 사람의 수고에 맡기셔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받게 하셨다.
-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려 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9편 ·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